



경험 많은 설기현·수비수 변신 차두리

허정무 호출 받을까

해외파 15명 총점검 명분 속

월드보이 5인방 호출 가능성



〈설기현〉

〈차두리〉

“15명의 해외파의 호출, 허정무 감독의 최종 선택은?”

A매치 일정을 놓고 날카롭게 맞섰던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숨을 고르고 ‘상생의 길’을 찾는 가운데 호주와 평가전(9월5일)을 앞두고 대표팀 구성에 골머리를 앓았던 허정무(54) 감독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였다.

이에 따라 27일 예정된 호주전 대표팀 명단 발표를 놓고 15명에 달하는 해외파 소집 대상 선수 중 누가 ‘허심(心)’을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혜성 수석 코치와 박태하 코치가 각각 영국과 독일을 돌면서 직접 해외파 선수들의 현재 컨디션을 점검하고 돌아온 만큼 한동안 대표팀과 거리를 뒀던 선수들의 간접 발탁도 기대할 만하다.

프로연맹이 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은 근본적인 원인은 A매치 일정 때문이었다. 호주와 평가전 다음날에 곧바로 정규리그 경기를 치러야 해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는 K-리그 구단들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프로연맹은 곧장 ‘대표 차출 거부’의 강수를 들고 나왔고, 축구협회는 고심 끝에 10월 예정된 세네갈과 평가전 일정을 바꾸는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 때문에 허정무 감독은 예정대로 대표선수 소집을 할 수 있게 됐지만 “K-리그에 지장이 없게 대표팀을 운용하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던 만큼 이번 호주 평가전은 해외파 총점검에 무게를 두고

K-리그 선수들의 선발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허 감독은 “15명의 해외파 선수를 모두 뽑지는 않겠지만 월드컵 본선 직전까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불박이 해외파 외에 그동안 대표팀 선발에서 제외됐던 설기현(풀럼), 차두리(프라이부르크), 안정환(다렌스터), 조재진(감바 오사카), 김남일(빗셀 고베) 등의 재발탁 가능성을 열어놴다.

이 가운데 대표팀 합류가 유력한 ‘월드보이’는 단연 설기현과 차두리다. 허 감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나이 든 선수들의 경험이 이로울 수도 있다. 좋은 경험을 없앨 수 없다”라고 강조했을 정도다.

허 감독은 특히 “설기현은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팀에서는 부진했지만 프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기대를 걸고 있다”라며 설기현의 재발탁에 무게를 뒀다.

또 차두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모습에 더 좋다”라며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꾼 부분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차두리는 오른쪽 풀백 요원으로서 오범석(울산), 최진천(포항) 등과 더불어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는 게 대표팀 코치진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전국 최강 광주 검도 맥 잇기 구슬땀

전국 최강 광주검도를 대표하는 조선대·서석고·설월여고·서석중 검도팀 50여 명이 26일 서석고체육관에 모여 하계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힘찬 기합소리와 함께 죽도를 내리치는 이들의 훈련열기에 체육관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달 열리는 용인대총장배 대회와 10월 전국체전 등을 대비해 2개월간 합동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는 이들의 동작 하나하나엔 정상을 향한 굳은 결의가 담겨있다. /최현배기자 choi@

호날두·메시·카카·라울·비야... ‘스타들의 경연장’

프리메라리가 30일 개막

〈스페인 프로축구〉

‘스타들의 경연장’으로 불리는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2009-2010시즌이 이번 주말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는 30일(한국시간)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장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데포르티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9개월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 세리에A와 세계 3대 리그로 꼽히는 프리메라리가는 이번 시즌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 카카, 라울, 다비드 비야 등 슈퍼스타들이 출몰하면서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의 화두는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FC바르셀로나의 독주를 과연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제2기 갈라티코’ 정책을 펴면서 시즌을 앞두고 호날두와 카카, 카림 벤제마를 영입해 호화 진용을 갖췄다. 호날두와 라울, 카카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그야말로 초호화 수준이다.

2008-2009시즌 정규리그에서 바르셀로나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데다 무관의 치욕까지 당한 만큼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에 대한 집념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밀어내고 정상에 오르기에는 다소 힘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클럽으로 손색이 없다. ‘마라도나의 재림’ 메시와 프랑스 대표팀 간판 공격수 티에



〈메시〉



〈호날두〉

리 앙리, 사비 에르난데스 등 지난 시즌 트레블(프리메라리가, 국왕컵,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등 우승 3관왕) 주역들이 건재하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호날두와 메시의 맞대결.

‘특급 원어’ 호날두는 지난 2007-2009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더블 우승’(정규리그,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을 이끌고 두 대회 득점왕에 올랐다. 정규리그 31골을 포함해 시즌 42골을 넣은 골 감각을 뽐내며 2008년 국제축구연맹

(FIFA) 올해의 선수를 포함한 최우수 선수상을 휩쓸었다.

호날두가 2008-2009시즌 프리미어리그 18골로 주축한 사이에 메시가 화려하게 떠올랐다. 메시는 지난 시즌 프리메라리가 31경기에서 23골, 11도움의 불꽃 활약을 펼쳤고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9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며 스페인 축구 사상 첫 트레블 달성의 주역이 됐다.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로 옮기면서 둘은 프리메라리가에서 맞붙게 됐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간판으로서 자존심 대결이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韓-濠 축구 평가전 내달 5일 상암서 열기로

‘대표팀 차출 갈등’ 봉합

우여곡절 끝에 치러지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호주 간 친선경기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호주와 평가전을 9월5일 오후 8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전은 대표팀의 A매치 일정을 놓고 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갈등을

빚으면서 구단들의 대표 차출 거부 직전까지 갔지만 협회가 10월10일 예정됐던 세네갈과 평가전을 K-리그 경기와 겹치지 않는 같은 달 14일로 옮기면서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역학석유가스(LPG)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1이 후원하는 이번 경기 입장권은 축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faticket.com)와 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살 수 있다. 입장권 가격은 특석 7만원, 1등석 5만원, 2등석 3만원, 응원석 1만원이다. /연합뉴스

정광고 전대운 3관왕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 역도

제17회 한·중·일주니어 종합경기대회에서 한국역도 기대주 전대운(정광고)이 3관왕에 올랐다.

전대운은 26일 보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역도 105kg급 경기에서 인상 150kg·용상 180kg·합계 330kg을 들어올려, 각 부문 1위를 기록하면서 대회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핸드볼 경기(목포대체육관)에선 한국 남녀대표가 중국을 27-20, 24-19로 각각 누르고 완승을 거뒀다. 나머지 테니스(중국전)·정구(일본전)·탁구(중국전)·농구(중국전)·배구(중국) 종목에선 각각 1승씩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럭비경기에선 한국이 일본에 5-78로 대패, 큰 기량차를 실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체고 신병철 금

대통령기 레슬링 63kg급

광주체고 신병철이 제35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학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신병철은 26일 경북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63kg급 결승에서 박주석(수원경성고)을 2-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자유형 58kg급 결승에선 최대혁(광주체고)이 윤휘승(전남체고)에게 1-2로 져,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동급 준결승에선 윤준식(광주체고)이 탑동료 최대혁에 패해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서승원기자 swseo@

신진희 잠영 400m 銀

세계핀수영선수권

한국 핀수영 기대주 신진희(20·경기도체육회)가 제15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잠영 4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신진희는 25일(한국시간) 러시아에서 열린 대회 여자 잠영 400m 결승에서 3분05초85로 터치패드를 찍어 중국의 류지야오(3분05초2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대한수중협회가 26일 전했다. /연합뉴스



27일(목)

▲2009 프로야구<한화> KIA(18 : 10·KBS n스포츠) <롯데> 삼성(18 : 15·SBS 스포츠) <두산> SK(18 : 15·Xports) <히어로즈> LG(21 : 30·MBC ESPN)

▲제8회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일본> 대한민국(18 : 30·MBC ESPN)

▲2009 세계유도선수권 DAY-2 왕기춘출전(22 : 00·SBS스포츠)

남성 헤어 기능장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원천배원

가발

조슬림!!

각 품 50만원~

최상품 최저가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젊음과 활력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 02-673-5898, 02-4822

원할아주세 011-000-9955

무등산 문반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일부요와 당선의 함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